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위 심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상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5. 7~5. 17 간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였다.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으로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단계적 축소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요건 강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 공시의무 강화 등으로 규제위는 5. 27(목)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 4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한 후 동 사항을 규제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5. 28 본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작법인의

지분정리 곤란 등 기존 지주회사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해소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보완방안을 도입하도록 개선권고를 하였고, 보완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비계열사 주식을 지분율에 관계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규제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개정안을 수정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행업 분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감소의 의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 4. 6.~5. 21. 계층별 소비자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여행업 관련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범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7월중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체점이 발견되었다.

표시광고법상의 중요정보고시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등 여행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여전히 미흡하고, 여행사업자 대부분이 표준약관을 사용하고는 있

으나 계약 당시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계약서 작성·교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약관과는 별도로 개별 약관 조항 중 불공정성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행사들은 계약 후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여행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영세 숙박업소의 경우 고객의 예약취소 및 계약불이행시의 거래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의 행태가 다수 발견되었다.

공정위는 향후 표시광고법상의 중요정보 고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감시·교육·홍보활동을 해 나가며, 불공정약관 조항 및 거래조건 변경 등의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는 한편, 숙박업 분야에서의 표준약관 제정·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미 보급한 여행업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약관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소보원이 발표한 「'03년도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동향 분석」에 의하면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2003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와 같은 감소는 ▶'02. 7월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시스템이 도입되어 '03. 1. 1부터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부실·불법 업체들 영업활동 금지 ▶공제조합에 의한 직접적인 소비자피해 보상 실시 ▶'02년, '03년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직권조사·시정조치를 포함한 지속적인 법집행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도 피해 감소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감소는 '02년 방판법 개정으로 전화권유판매업도 방판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개정법을 적용한 시정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는 공제조합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불법 업체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하며, 사전예방적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 개발·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판매고시 위반사건을 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1년 동안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관련시장의 개

선효과는 미흡하였고, 범위만 사례가 빈발하고 범위만 지역이 광범위하여 공정위에 의한 직권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참여 캠페인·민간단체 역량 활용 등 종합적인 대

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문판매시장 거래 질서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총 65건)을 행위 유형으로 보면 경품·무가지 제공,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강제투입, 거래거절, 불이익 제공 등이 있으며, 이 중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는 바, 최근 신문판매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신문선택시 경품 등의 제공에 영향을 받은 신규독자의 비율은 약 70%로 무가지·경품 등의 제공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자전거 등 부피가 커 눈에 잘 띄는 경품은 드물어졌지만, 상품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수단으로 은밀화·고액화 되었고, 점차 소비자 측의 요구에 상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관행화 되고 있으며, 신문의 기사내용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 선택이 곤란한 상황에서 무가지·경품 등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경우, 신문의 질보다 자금력에 의해 독자유인 경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신고발생 상습지역, 수도권 및 지방 신흥개발지역 등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 등 고시위반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신고된 사업자 이

외의 다른 사업자들의 거래관행도 수평적으로 직권조사 하여 처리하며, 직권조사 결과 본사와의 연계성이 확인될 경우 본사조사를 추진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년 하반기에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과징금, 범위반 사실 공표명령, 지자체 웹사이트에 범위반 사실 공지 등 범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도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경품관행은 소비자 측에서의 요구도 작용하는 현실이므로 「무가지·경품 안 받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소비자 일깨우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 캠페인 등에 소비자단체 및 민간 언론 감시기구 등 시민단체의 역량을 활용하고, 현재 공정위내 관련 조직·인력만으로는 위반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후속 위반행위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조사처리 역량을 보강할 방침이다.

그리고, 규정상 제공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받은 것이 신고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상기 대책과 함께 우리나라 신문판매시장의 기본통계, 가격결정, 유통구조 등의 본질적 문제점과 개선대책 발굴을 위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본 연합회(회장 김 용, www.kfta.org)가 후원한 『제3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

연대회』가 전국 13개 대학, 1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5월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간 과천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모의공



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는 대학생들이 실제 경제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들을 가상의 사건으로 설정하여 그 피해를 분석하고, 경쟁을 회복시키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심판 경연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공정경쟁 대상은 “스카이텔레콤(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공정경쟁 우수상은 고려대학교의 “XK텔레콤(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과 연세대학교의 “가람텔레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서울대학교 법학부의 “MX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건”이 수상하였고, 공정경쟁 장려상은 충남대학

교와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가 수상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최근 시사성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신저 끼워팔기, 위성 DMB사업과 관련하여 개연성이 큰 경쟁제한행위를 가상의 사건화하여 경연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학생들의 재치와 젊은 감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무대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경쟁촉진 개념”을 실연을 통해 체득함으로써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업종 임금 등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실태 합동점검 결과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04. 3. 8.부터 4. 28.까지 대형 조선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및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선업종의 사내하도급 관련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노동부는 1개 하도급업체의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에 따른 파견법 위반 및 96개 하도급업체에서 법정금품 미지급 등 3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지실태를 확인하였다.

노동부는 향후 근로자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불

이행시 고발 등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며,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가입조치를 의뢰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점검 결과 공표 등을 통해 임금인상 부담 전가행위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조선업체 중 5개 업체에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 미교부·지연교부 등 8개 위반유형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범위만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원사업자가 표준품셈이 없는 부분공사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과거 실적치 등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부분공사의 시공여부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7개 업체의 하도급거래계약서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을 확인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위만 정도를 고려하여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부분공사를 위탁할 경우 물량 등 공사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국조선공업협회 및 당해 업체에게 개선을 요청하며, 하도급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은 지체없이 수정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신고접수 처리진행상황 실시간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처리상황을 신고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5월 20일부터 접수되는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 '나의 신고접수처리 검색' 창을 통해 신고인이 직접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더불어 신고접수·처리상황을 즉시 알려주는 이메일 및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와 신고처리가 2개월 이상 걸릴 때, 그리고 처리가 완료된 때에 신고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오므로써, 신고인이 자신의 신고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알기 어렵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신고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불편이나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는데, 이번 실시간 안내시스템 운영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의 사건처리 진행절차의 투명성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4. 5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4년 5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6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4년 5월중 18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6. 1. 현재 373개로 전월 대비 3개사가 감소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5. 1. 515개에서 2004. 6. 1. 현재 523개로 8개사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5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4. 5. 1. 현재 891개에서 2004. 5월중 12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7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4. 6. 1. 현재 896개로 5개사가 증가하였다.

[2004. 5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4. 5. 1.	편 입				제 외						증감	2004. 6.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8개)	376	4	-	-	4	2	3	-	-	2	7	△3	373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33개)	515	1	4	3	8	-	-	-	-	-	-	8	523
합계(51개)	891	5	4	3	2	2	3	-	-	2	7	5	896

[2004. 5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2개사(회사설립 : 5, 주식취득 : 4, 기타 : 3)

◆ 제외 : 7개사(지분매각 : 3, 합병 : 2, 기타 : 2)

기업 집단	편입			제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삼 성	에스엘 시디(주)	TFT-LCD 제조 및 판매	회사설립	-	-	-
한 화	한화청량리 역사(주)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 에 관한 사업	회사설립	-	-	-
금호아 시아나	아시아나 에바카스(주)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관련업무의 개발, 판매, 역무제공 및 기술용역업	회사설립	-	-	-
두 산	두산모터스(주)	자동차 수입, 판매	회사설립	두산건설(주)	토목시설물 건설업	피합병
포스코	메타폴리스 (주)	화성동탄지구복합단지 피.에프사업의 건설과 운영	회사설립	-	-	-
씨제이	(주)에듀코아	인터넷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지분취득	-	-	-
	(주)키노네트	인터넷 영화전문 포털사업	지분취득			
	씨제이케이블넷 북인천방송(주)	종합유선방송업	지분취득			
	(주)기장종합 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업	지분취득			
세 아	(주)세가	건물관리 및 시설관리업	기타	-	-	-
한 국 타이어	한양타이어 판매(주)	타이어, 튜브, 후랩판매업	기타	-	-	-
삼 양	삼일냉장(주)	수출입업	기타	-	-	-
엘 지	-	-	-	엘지 투자증권(주)	증권위탁매매업	지분매각
	-	-	-	엘지투자신탁 운용(주)	증권투자신탁운용업	기타
	-	-	-	엘지선물(주)	선물중개업	기타
에 스 케 이	-	-	-	(주)위즈워드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지분매각
케이티	-	-	-	(주)케이티 렌탈	렌탈물건의 수입, 수출, 판매, 조달 및 도매	피합병
대 우 건 설	-	-	-	(주)조인건설	아파트 건설업	지분매각